

# 미래 진안 실현 위한 포석

전춘성 군수, 진안읍 중심지 확장 · 앙수발전소 유치 행정력 집중키로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수시 브리핑을 열고 미래 진안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먼저, 월랑지구 조성계획이다.

진안군은 전북개발공사와 도시개발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진안의료원 북측인 월랑지구에 9만4,727제곱미터의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월랑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70%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형과 지세는 북고남저의 완만한 구릉으로 개발이 쉬우며 진안읍 원도심과 연접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 입이 수월하다.

군은 월랑지구를 600세대의 주택용지, 업무용지, 도로, 공원을 갖춘 도시개발구역으로 주거, 산업, 생태, 문화, 치유 등의 기능을 종합한 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을 갖춰 군의 인구유출을 막고 침체한 읍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진안군 앙수발전소 유치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앙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내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수시 브리핑을 열고 미래 진안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생산과 소득 유발 그리고 완공 후에는 고용 증대와 수변 공간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관광 개발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진안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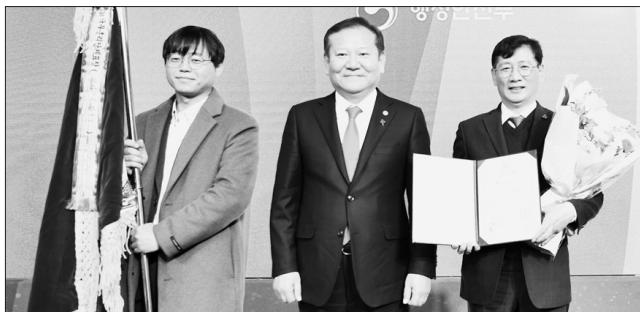
진안군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형에 압반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앙수발전을 위한 최고의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군은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에 앙수발전 TF팀을 두고 주민 수용성, 부지의 적성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피해는 최소화하고 앙수발전 효율은 국내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진안군에 앙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민선8기 2년차인 2023년은 개신창래의 정신으로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2024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군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실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장수군, 국무총리 표창 수상

행안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

장수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의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피며 지역생활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1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장수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특교세로 3억 원을 확보하고, 2년 차인 2024년에는 특교세 최대 10억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우수사업에 포함된 장수군의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산길 등 자연을 달리는 운동인 트레일레이스를 주제로 한 '한국의 샤모니, 장수트레일밸리지 사업'으로 트레일레이스 어울림센터와 연계한 거점 안내센터, 테마광장 조성, 장수 승마미래 체험존과 연계한 트레일 스테이션 조성, 트레일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장수군을 트레일레이스의 고장으로 브랜드화 해나가고 있다.

군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민간단체인 장수리닝크루(대표 김

영록)와 협력해 올해 제2회 장수트레일레이스, 세이비벌 장수 70K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참가자의 기록 및 사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대회 참여자들의 SNS, 블로그, 유튜브, 체험단 등을 통해 '한국의 샤모니, 장수트레일밸리지'가 끊임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은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전국 4개 지자체에만 수여되는 지역활성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앞으로도 트레일레이스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수군 트레일밸리지를 조성·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활력이 넘치는 장수군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장수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장수 트레일 밸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생동감 넘치는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전주기전대, 산림치유과 위탁 교육 업무 협약

진안군은 지난 22일 진안 산야초타운 전시관에서 전주기전대학과 산림치유과 위탁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부터 전주기전대학에 정원 20명의 산림치유과가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 산야초타운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진안군 산림치유과

대상 교육 위탁에 대한 기전대학의 협조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안군의 협조, 산림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수려한 산세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내년에 준공되는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을 비롯한 산림휴양 치유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교육을 통한 우수한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림치유 시설 운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방문의 해 응원 · 고향 사랑 확인”

재경무주군민회 정기총회 · 송년회 가져

지난 22일 서울 해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2023년 재경무주군민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횡인홍 무주군수와 이 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운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김철호 재경무주군민회 회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무주출신 가수 축하공연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경무주군민회는 관내

6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23명에게 각 총 7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정분, 엄호재, 정지윤 회원들은 고향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횡인홍 무주군수는 “2023년 한 해의 끝에서 고향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며 서로의 노고를 다독이는 이 시간이 무주군민이라는 소속감을 키우고 무주발전을 돋우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4년 자연특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이장협의회, 장학금 · 성금 200만원 기탁

연말연시를 맞아 장수군에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

장수군이장협의회(회장 박장옥)는 지난 22일 장수군청을 방문해 (재)장수군여성교육진흥재단에 지역 교육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장수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 등에 전달되고 관내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대상 교육 위탁에 대한 기전대학의 협조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안군의 협조, 산림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수려한 산세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내년에 준공되는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을 비롯한 산림휴양 치유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교육을 통한 우수한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림치유 시설 운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장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진안군은 전라북도가 추진한 2023년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역점 시책 등 4개 부문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현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우수시·군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모든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진안군은 토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와 클린하우스 운영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관내 방치된 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을 일제히 수거하여 정리하는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19 이후로 급증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범국민 캠페인인 쓰레기 3N0 운동(안 태우기, 안 물기, 안 버리기)을 통해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와 같은 환경오염 행위를 막고 청정 진안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을 인정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트레일레이스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수군 트레일밸리지를 조성·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활력이 넘치는 장수군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장수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장수 트레일 밸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생동감 넘치는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

무주소방서가 겨울철 공사장 등 용접·용단 시 불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적극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2022년 전북소방통계) 용접 등에 의한 화재는 40건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의 경우 화재발생 시 유독기스를 발생시키는 가연물질이 많아 작은 불티에도 쉽게 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높다고 한다.

소방서는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용접 시 안전수칙 준수, 화재위험 요소 사전 제거 등을 홍보했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관계인들에게 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